

클라크 뉴질랜드 총리를 위한 오찬사

존경하는 헬렌 클라크 총리 각하,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평화와 풍요의 나라, 뉴질랜드의 번영을 이끌고 계신 세계적인 여성 지도자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헬렌 클라크 총리 각하와 일행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각하께서는 한국을 네 번이나 방문하시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셨습니다. 오전에 가진 정상회담에서도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습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두 정상의 만남을 통해서 한국과 뉴질랜드의 우호와 협력이 한차원 높게 발전하게 된 것을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총리 각하,

뉴질랜드는 선구적이고 모범적인 민주·복지국가로서 이름이 높습니다. 세계 최초로 여성 참정권을 정착시켰으며, 계층간 차별이 없고 소득격차도 가장 적은 평등사회를 구현해 왔습니다. 특히 각하께서는 1999년 취임 이래 뉴질랜드 경제

의 안정적인 성장을 주도해 오셨습니다. '혁신을 통한 성장' 과 '재분배에 의한 불평등 해소' 라는 각하의 경제정책은 이미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같은 세계 경기의 침체 속에서도 4.4%의 높은 성장과 함께 최근 15년 이래 가장 안정적인 고용수준을 유지한 것입니다.

총리 각하의 강력하고 탁월한 지도력에 아낌없는 찬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뉴질랜드의 번영은 물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서도 더욱 큰 업적을 남기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총리 각하,

모래 27일은 6·25전쟁의 총성이 멎은 지 5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뉴질랜드 국민들은 자유와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능동적 역할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6·25 참전을 비롯해서 제1, 2차 세계대전에서부터 동티모르 평화유지 활동에 이르기까지 적극 참여하고 공헌해 왔습니다.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함께 피를 흘렸던 뉴질랜드 국민들의 용기와 희생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각하께서는 이번 정전협정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실 때 특별히 청소년 대표들을 동반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자라나는 세대에게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양국의 각별한 우의를 직접 체험케 하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두 나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는 외교와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서 명실상부한 동반자적 협력관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뉴질랜드에게 여섯번째로 큰 수출시장이며, 양국의 교역규모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인적교류는 매우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매년 10만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뉴질랜드를 방문합니다. 또 뉴질랜드에는 1만 5천명의 유학생을 포함해서 3만 3천여명의 우리 동포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과 10여년 동

안에 30배가 늘어난 숫자입니다.

그러나 양국의 경제규모와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에 비추어 볼 때 양국간 교역은 확대 균형의 방향으로 더욱 증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뉴질랜드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IT와 생명공학, 영상산업과 같은 첨단 분야에서도 호혜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한 양국의 협력과 선도적인 역할 역시 더한층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총리 각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지금 한국은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동북아시아에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문제도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적극 협력해 주신 각하와 뉴질랜드 정부에게 깊이 감사드리면서 변함없는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내일 방문하시는 부산에서도 뜻깊고 보람있는 일정이 되시기를 바라며 총리 각하의 건강과 성공적인 방한일정을 위해서, 그리고 뉴질랜드의 무궁한 번영과 우리 두 나라 국민의 영원한 우의를 위해서 축배를 제의합니다.

감사합니다.